

“화마로부터 목불 문화재 지키자”

해인사 자체 소방훈련 실시... 사찰 최초 비상하강시스템 ‘만족’

법보종찰인 합천 해인사주지 현승(가 7월 15일 화재시 경내 성보를 지키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에는 해인사 수행정진 중인 선방의 모든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방훈련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관, 국보 제52호 판전과 함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쌍둥이 비로자나불을 화마로부터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적광전 외부 서측부위에 원인불명 화재 발생! 모든 스님은 화재 진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각 방당에서 스님 30여명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 나왔다. 이들은 자체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진압하는 한편 대적광전 내 모셔진 법기보살, 관음보살 등 중요 문화재를 안전한 곳으로 긴급히 반출했다. 여기까지는 매년 해인사에서 열리는 연례 훈련과 같다.

이때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을 가상해 대비로전 내 목조 동형쌍불 비로자나부처님이 비상하강시스템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시연됐다. 화재 발생 2~3초만에 반응하는 감지센서 등 최첨단 재난대비 장치로 두 분 비로자나부처님을 지하 6m 아래로 대피시키는데 성



화재시 비상하강 시스템을 통해 지하 6m로 내려간 해인사 대비로전 비로자나불(왼쪽)과 소방훈련 장면.



공했다.

해인사 교무국장 재경스님은 “우리는 화재 등 각종 재해로 낙산사와 송례문과 같은 주요 국가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피해를 이미 경험했다”며 “해인사의 성보만큼은 우리 스님들 손으로 지켜내기 위해 자체 소방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훈련에는 합천 119소방대원들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도 동참했다. 총 훈련시간

25분 중 화재 진압 1단계에는 해인사 스님들이, 2단계에는 합천소방서의 화재 진압 순으로 이어졌다. 화재 발생 1~2분 만에 불길은 완전히 진화됐다. 실제와 같은 소방훈련이 진행되면서 해인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진짜 화재로 오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주지 현승 스님은 훈련 총평에서 “이번 화재 훈련은 소중한 문화재를 함께 지키자는 취지”라며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나 실제

상황에서도 오늘처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는 첨단 비상하강시스템과 화재감지센서 등 각종 첨단장비를 갖추는 한편 판전 내부에 청정소화기, 감시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감시원 8명이 24시간 순찰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관음종 일본 주요종단 순방 및 성지순례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은 7월 7~12일 한일불교교류 및 선린우호 관계 확대를 위해 일본 주요 종단의 총본산 및 대본산 9개 사찰을 순례했다.

관음종 남천축산 종정스님을 증빙으로, 총무원장 홍파은 스님을 방편 단장으로 한 총 44명의 출제가 방편단은 정토종 대본산 광명사(사지), 일련종 대본산 본문사, 진언종 대본산 평간사 등 주요 사찰을 순방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를 통한 양국 교류는 있었지만, 개별 종단 차원의 친선 방문과 교류확대를 위한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우 기자



대승종 11대 총무원장 도일 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도일)은 7월 15일 소피텔엠베서더 호텔 연회장에서 제11대 총무원장 도일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천광 스님을 비롯 각 종단 총무원장, 종단임원 및 종도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종정스님의 증빙 법어와 각 종무원장 임명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도일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추적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단 화합과 교육을 우선하여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공군 불자 여총신도회 결성법회 봉행

전 군에서 처음으로 여성불자 중심의 총신도회가 결성됐다. 공군 관음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불자들은 7월 15일 계몽대학교사 대법당에서 ‘공군 불자 여총신도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20명의 공군 군승, 공군교육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 가족, 공군불자 등 250여명이 동참했다. 일면 스님은 “이 인연을 계기로 공군불교 활성화와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특전사 호국사자사 수계법회 봉행

특수전사령부 호국사자사주지법사 청안은 7월 13일 법당에서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호국사자사 청안 주지법사, 특수전사령관 김상기 중장, 불암사 신도 및 불자장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사인 일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삼귀의계와 오계 수지를 통해 불자 장병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가보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인재양성·불교사업 육성 역점”

김의정 회장 24대 중앙신도회장 재선임



김의정 회장은 4년 임기동안 ▲신도회 역량 확장 ▲인재양성과 불교교육 강화 ▲불교관련 사업 육성 ▲불교정책기능 확대를 중점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정은 “장기적인 불교지변확대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며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개발 등 교육기구를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한 상설교육기구로 향상시켜 국제포교사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교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교의 전반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불교산업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신도회는 차(茶),연(蓮),자연장 등 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불교산업융합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회 재정자립을 위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신도조직과의 위계를 확립, 신도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지고 있는 종교편향에 대해 “내 종교만 위하는 종교편향은 자신의 종교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행위”라며 “중앙신도회는 산하단체인 종교평화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응, 교단외호와 포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제24대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10월 1일경 취임식 및 집행부 위촉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필리핀에 ‘동국대 거리’ 조성

리갠시 판단 지역내

필리핀에 ‘동국대 거리(DONGGUK UNIVERSITY BOULEVARD)’라 이름 붙인 도로가 생겼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경력개발원(원장 박상범)은 ‘필리핀 알베이(Albay)주 리갠시(Ligao)시 판단(Pandan) 지역이 길이 2km의 ‘동국대 거리’가 생겼다. 7월 8일 ‘동국대 거리’를 알리는 석제 조형물 제막과 테이프 커팅 행사를 진행했다”고 7월 17일 발표했다.

“동국대 거리”는 동국대의 판단 지역 봉사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리갠시가 조성했으며, 거리선포식에는 곤잘레스 시장(리갠시), 박상범 단장(동국대참사팀봉사단), ACEVA(아시아문화교류봉사협회) 김중성 한국대표와 에반젤린 필리핀대표 등 시민과 동국대 학생들이 참석했다.

8일 선포식에서 곤잘레스 시장은 “동국대 참사팀봉사단의 고마움을 오랫동안 기억하겠다. 동국대와 리갠시와의 유대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선포식을 전후해, 동국대 참사팀봉사단원 30명은 7월 2~12일 필리핀 리갠시 판단지역을 찾아 판단초등학교 담장 페인트 도색, 도로변 배수로 정리, 한국음식 나누기, 자비의 쌀 나누기, 모내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동섭 기자

‘u-월정사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를 도입한 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된다.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u-IT 신기술검증사업’ 공모에서 도가 응모한 ‘u-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등을 통해 월정사 화재 및 불법침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7억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재사전예방, 확산방지, 진압대책 등 소방방재기술과 함께 유무선 인프라 및 영상기술 등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적

“재는 영가의 마음을 따라 지내야지요”

(2)송광사 추강 대화상

그래서 나도 오대산 월정사로 따라 갔다. 추강 스님은 상원사에 계시고 나는 월정사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중에 상원사 선방에 들어가니 우리 노스님은 조실스님으로 계시고, 현 부산 태종대 조실스님으로 계신 도성 스님은 입승을 보고 있으면서 나에게 미감 일을 말했다.

하루는 서울에서 군인 헌분이 와서 아버지 49재를 지내달라고 돈을 내어 놓았다. 빨간 지폐 백장을 받은 희섭 스님은 놀라면서 추강 스님께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상만 처리하시오.”
“나머지 돈은요?”
“젓상에 놓아 주십시오.”

정한 날짜에 재를 지내러 온 군인이 영전에 차려진 상을 보고 노발대발 야단이 났다. “어떻게 남의 재를 이렇게 망쳐 놓을 수 있느냐는 말인가. 때어먹어도 분수가 있지!” “조실스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차렸습니까.”

문수전에 모여 앉은 재주들은 별로 즐거운 기색이 없고, 오직 노스님 혼자 요령을 들고 20분 정도 선법문을 하였다.

“생종하처래(生從何處來)
사향하처거(死向何處去)

생이원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이원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이것도 재라고 지내십니까?”
“그야 영가의 마음을 따라 재를 지내야지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 박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버지는 일찍이 마누라를 잃고 당신 하나를 기르기 위해 동부서주하다가 급기야 장교가 된 아들 승진을 위해 돈 마련하느라 재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지만 아들이 대장되는 것을 보고 그 보람으로 세상을 살았으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 돈 5만원만 가지고 재를 차리고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상에 놓았으니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 봉투를 돌려주었다. 비로소 재주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큰스님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모시다가 장차 서울 봉인동 대각사에서 노스님께서 열반하시자 자신의 아버지님 초상처럼 그 뒷바라지를 치루워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스님의 제자 가운데는 글 잘하기로 유명한 인암스님이 있고, 법교상업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조용순 스님이 있었다.

길 잃은 나그네에게 길을 안내한 스승이 시어/ 구름바람 몰아칠 땐 해도 달도 보이지 않더니/ 맑은 바람 솔솔 부니 가을 못에 달이 떴습니다.